

2014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 동행

SK텔레콤 행복동행 프로그램

가능성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가능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상하고 실험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場)도 필요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오늘의 현실로 바꾸는
희망의 길에 SK텔레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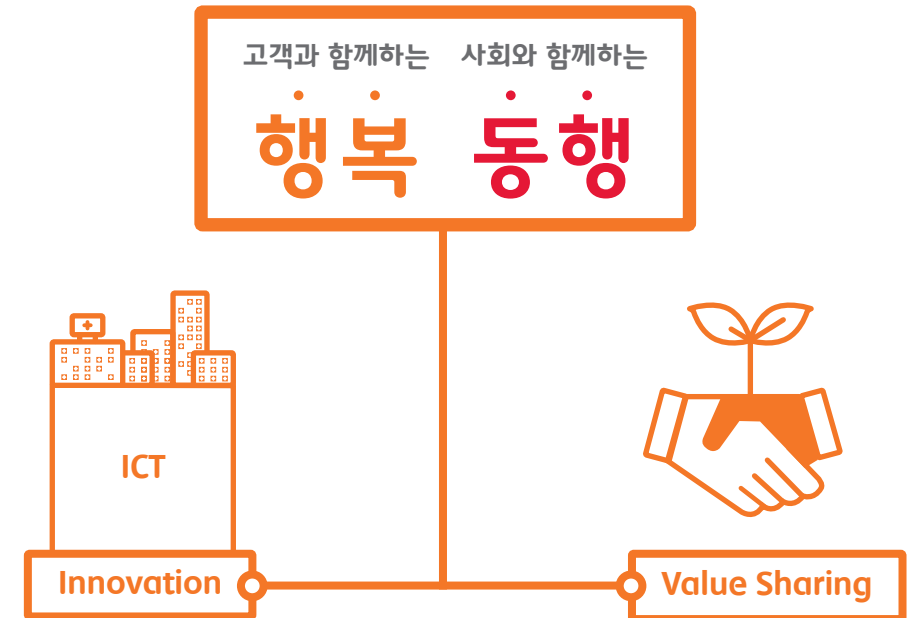
ICT, 창조경제 그리고 SK텔레콤의 행복동행

ICT 경쟁력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이끌며 고객·사회와 동행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앞선 ICT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의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을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하고, 동반성장 및 창업활성화 등 ICT 생태계 육성을 통해 사회와 동행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 변화의 중심에 ICT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개별 산업을 지원하던 인터넷 시대를 지나, 이제 ICT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성장과 혁신을 견인합니다. 단순한 결합이 아닌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재창조하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에 의한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스마트해진 기기와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되면서 ICT는 우리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ICT와 만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삶의 혁신까지 견인하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비전 2020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Partner for New Possibilities)'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고객,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혁신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와 개방을 통해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SK텔레콤은 고객·사회와 행복하게 동행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행복동행

SK텔레콤의 행복동행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발걸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사회와 행복하게 동행하기 위해 혁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적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Vision 2020' 수립

미래지향적인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SK텔레콤의 비전을 선포하다. 2020년까지 100조 원의 기업가치를 달성하고 세계 100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며, 고객·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겠다는 SK텔레콤의 의지를 천명하다.



Vision 2020의 구체적 실행 전략 '행복동행' 선언

Vision 2020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행복동행'을 발표하다. 최고의 고객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동반성장 및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 두 축으로 구성된 '행복동행'을 통해 고객·사회와 함께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가겠다는 약속을 하다.

창조경제 모범사례로 주목 받는 행복동행 실천



ICT를 통한 스마트 경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기반 스마트 경영지원을 시작하다. 2012년 서울 중곡제일시장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인천신기시장으로 이어져오는 프로젝트로 고객 DB 축적, ICT 활용 DB 마케팅, 시장별 특화 프로그램 육성 등을 통해 매출 및 고객 방문이 10% 증가하는 성과를 올린다.



ICT 기반의 창업 지원을 위한 '행복창업지원센터' 설립

SK텔레콤의 창업 지원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한 행복창업지원센터를 열다. 2013년 7월 오프라인 공간 개소에 이어 11월 온라인 행복창업지원센터 포털을 오픈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되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다.

※행복창업지원센터(www.sktincubator.com) 개인 및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 추진을 위해 SK텔레콤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ICT 창업지원 포털 사이트



ICT 융합형 벤처창업 프로젝트 'BRAVO! Restart' 출범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BRAVO! Restart'를 시작하다. 창업자금 지원, 컨설팅,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용 업무공간 제공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새로운 창업활성화 모델로 인정받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진행된 1기 10개 팀에 이어, 2기 13개 팀이 2014년 4월에 출범하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로봇활용 교육복지분야 창조행복 나누美' 출범

로봇 관련 중소기업체들과 함께 전국 80개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로봇 및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로봇활용 교육복지분야 창조행복 나누美' 발대식을 개최하고, ICT 교육복지사업에 나서다. 2014년 8월부터 실시될 스마트로봇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시범 설치

제주지역 15개 농가의 시설 하우스 설비에 시설원에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인 스마트팜을 시범 설치하여, ICT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다.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한 운영비 감소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3D 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소 'SK Fab Lab Seoul' 개소

SK텔레콤이 진행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 아이템을 지원하기 위해 3D 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소를 개소하다. 예비·초기 창업가들이 시제품 제작 비용을 대폭 절감함에 따라, 제조업 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연관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융합도 추진되다.

혁신을 통한 성장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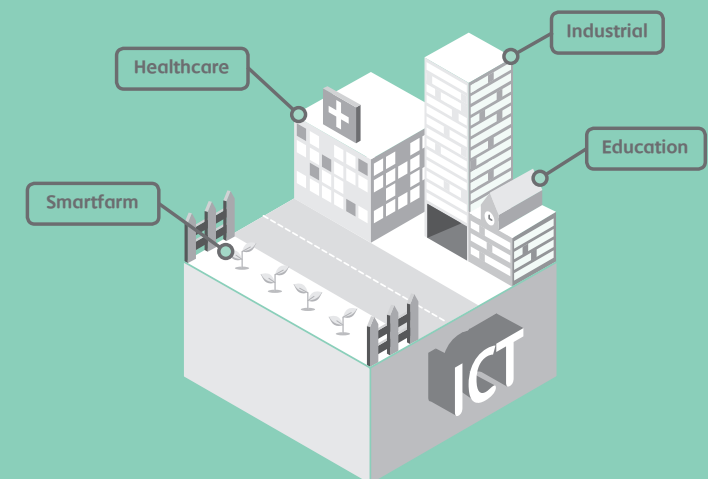
1. 산업융합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창조경제의 시대인 지금, ICT는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필수불가결한 성장동력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개별 산업을 보조적으로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 산업과 서비스가 ICT와 융합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를 창출합니다. 세상에 없던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SK텔레콤은 고도화된 ICT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서비스 및 산업의 인큐베이션을 지원하고 타 산업과 시너지 창출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이 주도하는 ICT 혁신은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고객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INNOVATION



1

산업융합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결합을 넘어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SK텔레콤은 ICT 대표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융합화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농축수산업·의료·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성장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 X 전통시장

창조경제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ICT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ICT X 농축수산업

ICT 융합기술로 농촌에 스마트한 미래 선물

1

ICT x 전통시장

“ICT를 통해 스마트해진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1.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유통시장의 방대화로 전통시장은 점차 침체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전통시장의 현실에 주목하고, ICT¹에 기반한 스마트 경영을 지원합니다. ICT 마케팅 솔루션을 활용한 SK텔레콤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창조경제의 대표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2년 Vision 2020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능성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고객·사회와의 행복동행을 선언하고, 고객 및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동반성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행복동행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나날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에 주목했습니다. 전통시장 침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이슈입니다. 쇠락해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왔지만 일시적이고, 그 효과 또한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텔레콤은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 아래, SK텔레콤이 보유한 ICT 역량을 전통시장에 결합시키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ICT를 결합한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SK텔레콤은 시범시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ICT 기술 및 마케팅 역량을 결합하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시범시장을 찾던 중 서울 중곡제일시장과 인천 신기시장을 만났고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서울 중곡제일시장 창조경제의 모범을 전파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로 선택된 곳은 서울 중곡제일시장입니다. 그동안 중곡제일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도 만들고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마케팅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SK텔레콤은 중곡제일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T를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체계적 고객관리를 위한 고객 DB 확보

체계적인 고객관리는 스마트 경영을 위한 중요 요소입니다. SK텔레콤은 상인들과 함께 고객 DB를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금요장터’에서 1점포 1품목 특가 판매와 스크래치 복권행사를 실시하여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인들은 고객 DB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장 인근 점포를 홍보거점으로 활용하여 시장상품 교환권 지급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곡동 거주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SK텔레콤과 OK CASHBAG 고객을 대상으로 MMS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확보한 3천여 명의 고객 DB는 중곡제일시장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양한 ICT 활용으로 전통시장의 스마트화에 기여

다양한 ICT를 활용한 DB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개별점포를 방문하여 MYSHOP, 스마트월렛 등 ICT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 스스로 ICT 활용 능력을 높여야만 전통시장의 스마트화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소상공인 경영지원 솔루션, MYSHOP

SK텔레콤의 소상공인 경영지원 솔루션인 MYSHOP을 통해 주문부터 판매까지 ICT 마케팅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모바일 전자지갑, 스마트월렛

스마트월렛은 카드, 멤버십, 할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지갑입니다. 쿠폰 발행 및 홍보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전개함과 동시에 스마트월렛에 상품권 발행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상품권 판매액 대비 두 배 이상 판매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③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스마트전단

특별할인 품목 등 유용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스마트전단을 활용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골고객 DB를 이용하여 스마트전단을 시범 시행한 결과 발송 당일의 점포 매출이 20~50% 증가했습니다.

SK텔레콤과의 협업으로 온라인 쇼핑물 진출

중곡제일시장 고유 브랜드의 성공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을 활용했습니다. 중곡제일시장의 자체 참기름 브랜드인 '아리청정'을 SK텔레콤의 온라인 쇼핑물 11번가에서 특화 판매하여 온라인 매출을 수십 배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 신기시장

최적화된 ICT 솔루션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다



2013년 5월부터 IC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인천 신기시장은 인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SK텔레콤이 신기시장을 처음 만났을 때 신기시장은 인천에 정착하는 크루즈선 승객과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위한 체험시장으로써의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신기시장에 SK텔레콤은 중곡제일시장과 같은 ICT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시장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전용 멤버십 제도 도입

소상공인 경영관리 솔루션인 '마이샵'을 도입해 체계적인 고객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시장 전용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기시장 전용 멤버십 가입고객은 구매금액의 1%를 OK CASHBAG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고, 전국 5만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결제, 고객관리, 마일리지 적립 등 기존 전통시장과는 차별화된 멤버십 제도로 도입 3개월만에 회원수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ICT 체험 고객센터 운영으로 젊은 고객층 확보

신기시장 고객센터를 특화된 고객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ICT 체험·교육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용 스마트로봇 '알버트'와 '아띠', 초소형 빔프로젝터 '스마트빔', 소상공인을 위한 ICT 경영지원 솔루션 '마이샵', ICT 융합형 벤처창업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집보드' 등을 고객들이 마음껏 활용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젊은 고객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SK와이번스 야구단과 함께 하는 스포츠 마케팅

신기시장이 문학야구장과 가깝다는 점에 착안, SK와이번스 야구단과 연계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와이번스 선수를 신기시장 홍보대사에 선임하고, 야구장 입장 고객 대상 신기시장 할인권 제공, 각종 이벤트를 통한 와이번스 경기 입장권 증정, 선수단 사인회 및 신기시장 앞 와이번스 거리 조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고객 편의 제고하는 스마트 배송 시스템

SK텔레콤은 전국 최초로 신기시장에 스마트 배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무인배송함에 물품을 넣고 전화번호와 용도를 입력하면 배송요원이 직접 배송 및 국내외 택배를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신기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전통시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중곡제일시장과 인천 신기시장에서의 경험과 성공을 토대로 SK텔레콤은 타 시장에서 접목 가능한 ICT 솔루션을 발굴하고, 향후 이를 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ICT 기술이 전통시장에 적용될 수 있고, 전통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SK텔레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ICT 솔루션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ICT x 농축수산업

“ICT 융합기술로 농촌의 미래가 스마트해집니다”

2.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서로 소통하는 기술

이상 기후, 고령화, FTA 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수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농축수산업에 첨단 ICT를 융합하여 농어촌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IoT²에 기반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편, ICT를 활용한 사업지원 시스템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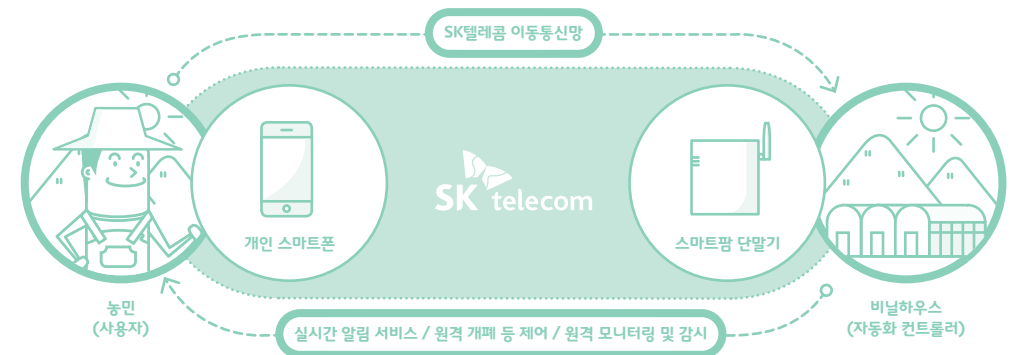
첨단 IoT 기반 기술로 상생을 모색하다

2013년 6월, 제주지역의 15개 농가에 시범 설치된 스마트팜은 IoT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원에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입니다. 무선통신 기능이 내장된 장치를 비닐하우스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어 신호에 따라 각 자동화기기의 컨트롤러를 제어하며, CCTV·온도 및 습도 센서의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합니다. 실시간 알림서비스, 원격 모니터링 및 감시, 개폐 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연재해와 시설물 오작동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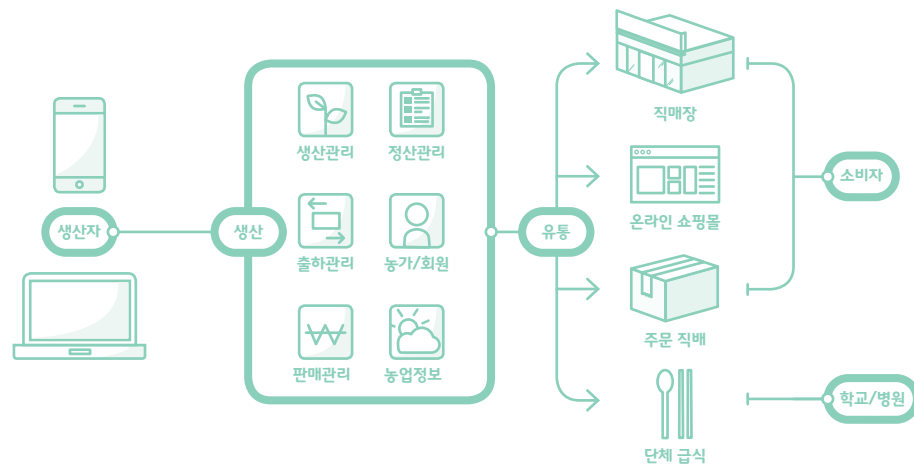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감소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솔루션은 다양한 농업시설물과 수산물양식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곧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유통업체들과의 상생협력도 모색합니다.

로컬푸드 스마트워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스마트한 지역 농산물 유통 시스템

SK텔레콤은 ‘스마트 로컬푸드 3 사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합니다. 국내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 전북 완주군은 ICT 지원으로 로컬푸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스마트워크]



3. 로컬푸드

거주지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는 이동거리 단축으로 식품의 신선도를 높이고,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로컬푸드 사업지원 시스템은 ① 농민들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② 로컬푸드 사업관리자가 농가와 판매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③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농작물의 수량과 품목을 스마트폰으로 등록하면 이 정보는 저절로 통합 관리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사업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농가의 생산 계획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량과 품목을 각 농가들에게 다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사업관리자와 농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됨으로써 생산과 유통의 협응력이 빨라졌습니다.



로컬푸드 지원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사회적기업인 (재)행복 ICT와 함께 향후 스마트 로컬푸드 사업지원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 확대 적용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만장 IoT 수조 감시 시스템

실시간 설비 감시로 폐사 방지에 기여하다

SK텔레콤은 IoT 기반 기술로 센서, 통신망, 플랫폼 등이 연결된 양만장 수조 감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은 설비가 고장나면 수온 변화와 산소의 과부족 등으로 폐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설물입니다.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IoT 수조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 위험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고창의 한 양만장과 MOU 체결 후 개발 중이며, 2014년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향후 430여 개의 국내 양만장 및 2,500개의 내수면 양식장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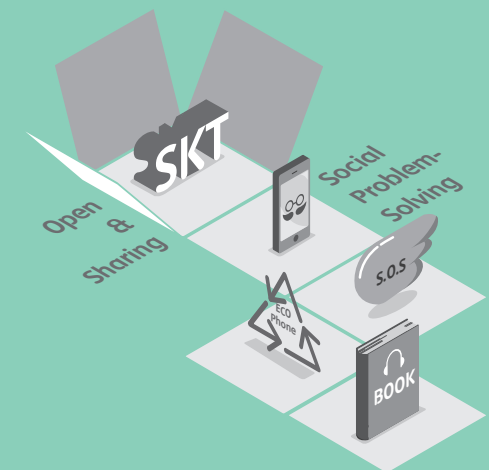
2. 공유 및 개방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3. ICT 통한 사회문제 해결

SK텔레콤은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해 전(全) 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해갑니다.

SK텔레콤은 ICT 역량을 개방하고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ICT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ICT는 세상 모든 기술의 최정점에 위치하며 동시에,
모든 기술의 내부에 스며들어 새로운 기술을 다시 추진해 내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끔은 최첨단 ICT
때문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ICT가 사람을 향해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을 향해 동행하는 것이
SK텔레콤 ICT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

공유 및 개방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공유와 개방으로
창조경제의
길을 모색하다

SK텔레콤은 ICT 인프라와 자산을 기반으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SK텔레콤은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창의적인 개인, 기업과 함께 합니다.

ICT 융합형 벤처창업 프로젝트

BRAVO! Restart

BRAVO Day

ICT 인프라 공유 및 개방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T open lab

기술 트렌드 공유 및 협력의 장 T open lab 개발자 포럼

3D 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소 SK Fab Lab Seoul

개방과 공유가치를 실현한 빅 데이터 개방

오픈 API 형태의 온라인 원스톱 개발 환경 T developers

1 “ICT 융합형 벤처창업지원을 통해 청·장년층이 창업생태계의 주역이 되어 창조경제의 꽃을 피웁니다”

ICT 융합형
벤처창업지원
프로젝트
‘BRAVO! Restart’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 기회 부족으로
청·장년 할 것 없이 대부분 손쉬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 폐업과 재창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청·장년층을 위한 ICT 융합형
벤처창업지원 프로젝트인 ‘BRAVO! Restart’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BRAVO! Restart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 컨설팅,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용 업무공간 제공 등 창업의 A부터 Z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청·장년 세대가 ICT 기반 창업생태계의 주인공이 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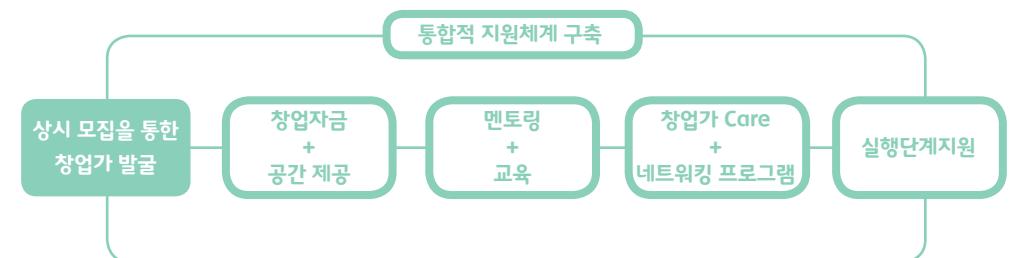
BRAVO! Restart ICT 융합형 벤처창업지원



청년의 패기와 도전정신, 장년의 경험·지식과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결합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활성화 모델로 창업가와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 개최된 ‘창조경제 실현모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BRAVO! Restart’는 ICT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으며, SK텔레콤의 행복동행 추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의지를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 진행된 1기 10개 팀 중 4개 업체의 사업은 현재 SK텔레콤과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발로 스마트기기를 조작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ICT 융합형 스마트 운동기구인 ‘스마트 짐보드’는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레이저방식의 HD급 피코빔 프로젝터 개발은 SK텔레콤의 특허 9건을 바탕으로 연구원과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며 2014년 10월 상용화 제품을 출시하여 SK텔레콤과 같이 Global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기 공개모집을 통해 255개 신청팀 중 13개 창업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인큐베이팅이 시작된 2기 역시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에 5건이 선정되는 등 이미 혁신 창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ICT 융합형 벤처창업 프로젝트 BRAVO! Restart]



BRAVO Day

ICT 융합형 창업 활성화 포럼



청·장년 창업가들이 창업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BRAVO Day'를 격월로 운영함으로써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대표 등 투자 전문가의 현장 멘토링과 더불어 성공한 창업가의 특강, 최신 ICT 융합 창업 트렌드 공유 등 창업가 및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BRAVO! Restart는 ICT 기반 고부가가치 창업 모델 및 성공 스토리 창출은 물론 청·장년 창업의 소통과 협업, 멘토링을 위한 포럼 및 인프라 운영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 CSV 모델의 대표 모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BRAVO! Restart와 BRAVO DAY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창업생태계 발전은 물론 창조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INTERVIEW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는 BRAVO! Restart는 감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장년 창업을 지원하는 'BRAVO! Restart'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장년층의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 확률이 높은 생계형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BRAVO! Restart'는 ICT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자문·교육·심사역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창업가들이 'BRAVO! Restart'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BRAVO! Restart'
자문·교육·심사역

많은 투자 성공 경험을 갖고 계신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BRAVO! Restart'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SK텔레콤의 'BRAVO! Restart'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수많은 창업 사례를 지켜봐 온 저의 눈에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최고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기업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창업자금 지원부터 컨설팅,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용 업무공간 제공까지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ICT 역량을 보유한 SK텔레콤이 지원 기업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SK텔레콤과 지원 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은 물론 지원 기업에게는 성공 스토리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BRAVO! Restart 1기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	자금지원
HD급 레이저 피코프로젝터	· 디지털 교육용 초소형 빔 프로젝터 개발 사업 · SK텔레콤과 공동 개발 진행 중 · 2014년 2만 대 판매 예상 (50억 원 매출 기대) · Venture Capital 투자 유치 5억 원 (마젤란기술투자 등 3개 사)	11.2억 원
스마트 짐보드	· ICT 융합형 스마트 운동기구 및 운동용 콘텐츠 제공 사업 · 2014년 3월 출시 · 2014년 2천 대 판매 예상 (10억 원 매출 기대)	1.02억 원
무인택배 시스템	·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무인택배서함 서비스 개발 사업 · 대학 및 편의점 대상 무인택배 서비스 준비 중 · 인천 신기시장 내 최초로 무인택배시스템 구축 예정	0.6억 원
신소재 Cavity Filter 제작	· 휴대폰 초경량 캐비티 필터 (Cavity Filter : 이동통신 중계기용 전파 잡음 제거 필터) 개발 사업 · SK Fab Lab Seoul의 3D 프린터 활용, 시제품 완성 · 2014년 5월, SKTelesys에서 시제품 테스트 후 공동화 사업 예정	1.2억 원

[BRAVO! Restart 2기 창업 사업 개요]

사업명
광각보안영상 편집솔루션
얼굴인식 출입보안시스템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선정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기기 개발
모바일 계약 인증 서비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선정
애완견 원격 운동 및 급식 시스템 개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기능성 S/W 개발
공공장소 TV 음성 개별 청취 솔루션
앱 토이 : 책 읽어주는 강아지
Virtual 전자칠판 ‘Bignote’
감성메시지를 보내주는 NFC 팬시 상품 및 서비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선정
휴대용 SD메모리 활용 저장장치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선정
학습용 스마트 블록 완구 개발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선정
한국형 앱 인큐베이팅 사업

※ 창조경제타운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 하는 대한민국 사업 아이디어 플랫폼

2 “ICT 인프라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T open lab

-

T open lab
개발자 포럼

-

SK Fab Lab Seoul

-

빅 데이터 개방

-

T developers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자산이나

실험 인프라가 없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시장은 갑작스럽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실험하고 실행한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의 ICT 리딩기업으로서, 개방과 공유를 통해
혁신시장 창출에 이바지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기술 동향 관심자가 참여하는 ‘T open lab 개발자 포럼’,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Healthcare 포럼’ 등 SK텔레콤이 상시 운영하는 포럼들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또한 SK텔레콤이 보유한 빅 데이터 오픈, 모바일 웹과 앱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도구와 자원 제공, 시제품 제작을 위한 하드웨어 개방, 아이디어 기술 구현과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 모든 ICT 인프라(콘텐츠 · 데이터 · 네트워크 · 디바이스 ·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등)를 지원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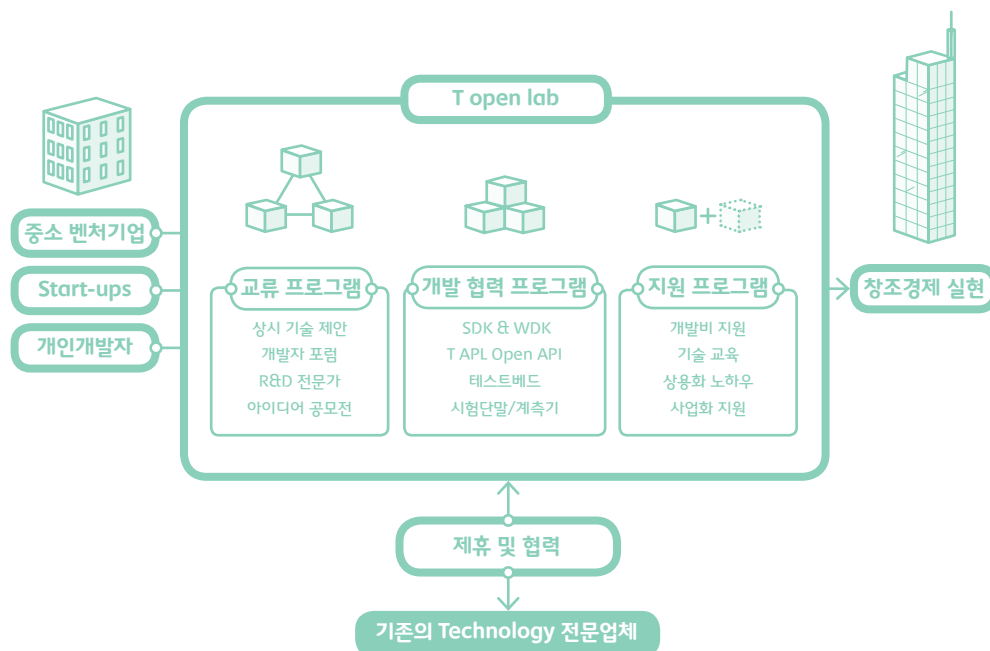
T open lab

혁신적 아이디어를 꽃피우는 온·오프라인 공간



혁신적인 ICT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기술 구현과 테스트 인프라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입니다. 자체 개발과 시험 환경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와 개인 개발자에게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R&D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또한 SK 텔레콤의 전문 R&D 인력과 소통·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실익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T오픈랩은 200대의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와 최고 3억 원에 이르는 계측 장비 22대, 상용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실드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약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룸과 테스트 룸, 세미나실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T open lab 개발자 포럼

ICT 업계 최신 기술 트렌드 공유 및 협력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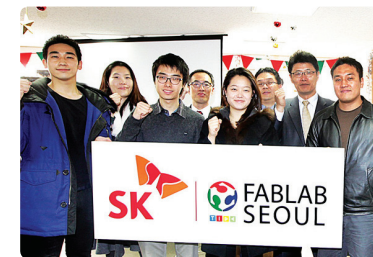
지금까지 18회가 진행된 T open lab 정기 개발자 포럼에서는 중소·벤처기업 개발자들과 ICT 업계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올해 19번째 열리는 T open lab 정기 개발자 포럼은 'Bluetooth Enabled IoT'를 주제로 블루투스 기반의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에코 시스템 확대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연과 함께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아이템의 시연과 전시도 병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자 포럼은 주제인 'Bluetooth Enabled IoT'와 연계한 공모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SK Fab Lab Seoul

3D 프린터 활용으로 창업가를 지원하다



SK텔레콤이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BRAVO! Restart', 'T open lab' 등에서 발굴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 3D 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3년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한 3D 프린터 기술은 최근 '제3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금형을 제작하거나 여러 종류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시제품 제작 후 오류가 있을 경우 디자인만 수정하면 손쉽게 다시 제작할 수 있어 초기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하면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해 생산할 수 있게 되며, 별도의 맞춤형 생산 설비나 숙련도 높은 작업 없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제조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 Fab Lab Seoul에서는 장비 준비에만 그치지 않고, 제작 관련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창업가들에게 3D 모델링 및 스캐닝을 통한 설계 및 후가공 작업 등을 지원합니다. 2014년 4월 기준 SK Fab Lab Seoul에서 52개 시제품이 제작되었으며, 296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예비·초기 창업가들이 시제품 제작 비용을 대폭 절감함에 따라, 제조업 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연관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융합도 추진함으로써 ICT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 데이터 개방

활용도 높은 빅 데이터로 개방과 공유가치를 실현하다



SK텔레콤은 ‘bigdata hub’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 중 최초로 SK텔레콤이 보유한 활용도 높은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 데이터란 엄청난 양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산업에 활용됩니다.

※ bigdata hub (www.bigdatahub.co.kr) 개방된 각종 Data를 활용해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를 경험하실 수 있는 빅 데이터 개방 및 공유 사이트

6.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

SK텔레콤은 bigdata hub를 통해 SK텔레콤의 빅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유용한 데이터, 협력사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등을 API ⁶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SK텔레콤 데이터와 공공기관 데이터를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bigdata hub에는 고객 정보 이슈를 제거한 10종의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91종 127건의 데이터가 이미 개방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용한 공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는 것에 맞춰 빅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bigdata hub를 계속 발전시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T developers

오픈 API 형태의 온라인 원스톱 개발환경을 제공하다



‘T developers’는 모바일 웹 및 앱 개발의 전 단계에 걸쳐 개발자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클라우드 및 오픈 API 형태로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원스톱 개발 환경입니다. T developers를 통해 앱 개발자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 developers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개발자나 신생 기업들이 서버 등 하드웨어 구축 비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SK텔레콤의 검증된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 등을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쉽고 빠르게 서비스로 현실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다양한 아이템들을 보다 경제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3

ICT 통한 사회문제 해결

따뜻한 ICT로
기술혁신형
복지생태계를
구축하다

SK텔레콤의 ICT는 사람을 향합니다.

ICT 발전과 경제 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설치하고, 부작용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로
모두가 행복한 ICT 강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적 ICT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행복 ICT

재단법인 행복한 에코폰

ICT 사회적 안전망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초록버튼

스마트로봇 활용 교육

T실버서비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1

재단법인
행복 ICT-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나누는 만큼 행복한
ICT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ICT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ICT가 공익을 위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ICT를 통한 복지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행복 ICT

취약계층의 ICT 일자리를 만들다



2011년 SK텔레콤이 설립한 ‘재단법인 행복 ICT’는 ICT 기반 사회공헌 및 공익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행복 ICT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다른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기업 IT 경쟁력 향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IT 분야 컨설팅 등 사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 ICT는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2010년부터 서울시와 SK텔레콤이 함께 운영한 취약계층 대상 전문 ICT 개발 교육 프로그램 ‘희망 앱 아카데미’ 수료자에게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을 시작으로, 기본적인 ICT 교육을 받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ICT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

중고 휴대폰 유통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전문감정평가사의 품질평가를 거쳐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고객들께 저렴하게 공급하는 ‘T에코폰’ 사업을 시행하여 고객의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중고폰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에 기여해왔습니다.

2013년 4월에는 T에코폰 업무를 수행하던 ‘T에코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을 설립했습니다. 행복한에코폰은 중고 단말기의 매입부터 감정평가, 클리닝, 패키징까지 중고 단말 안심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행복한에코폰은 사업을 위한 핵심 IT 인력이자 신규 유망 직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중고폰 감정평가사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신규 채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014년 말까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2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사회적기업이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미흡함이 있었다면, 행복한에코폰은 SK텔레콤이 자사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화한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ICT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키겠습니다”

스마트초록버튼

- 스마트로봇
활용 교육

- T실버서비스

-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고도 성장의 그늘 아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즐겁게
정보통신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요인이 없을 때 경제발전의 지속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ICT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병행 추진되는 순환형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스마트초록버튼

비상 상황에서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다



SK텔레콤은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할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가족의 안심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블루투스 장치로 응급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스마트초록버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초록버튼은 SK텔레콤 ICT기술원의 기술지원과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올해 2월 스페인 ‘월드모바일콩그레스(MWC) 2014’에도 출품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초록버튼은 어린이나 여성 등 사용자가 위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연동된 기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리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긴급 응급호출(위치정보문자 및 알림)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을 통해 단독으로 출시되었지만 모든 가족의 안심을 위해 타 통신사 고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로봇 활용 교육복지분야 창조행복 나누美

W-Tech와 연계한 ICT 교육복지시대를 열어가다



7. W-Tech
복지(Welfare) 영역에서
기업과 사회의 상생
(Win-Win)을 이끌어
내는 따뜻한(Warm) 기술

SK텔레콤은 2014년 4월, 로봇 관련 중소기업체들과 함께 전국 80개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로봇 및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로봇 활용 교육복지분야 창조행복 나누美’ 발대식을 개최하고, ICT 교육복지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로봇 활용 창조행복 나누美’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회복지모델인 ‘창조행복 나누美(W-Tech) 7사업 연계 민간차원 최초 사례입니다. SK텔레콤은 ‘로봇 활용 창조행복 나누美’ 참여업체들과 함께 전국 70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10개 지역아동센터에 각 20대씩, 총 1천 600대에 달하는 교육용 스마트로봇 · 스마트폰 · 학습용 콘텐츠 등 각종 로봇 학습 교구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지원, 오는 8월 2학기 시작과 함께 스마트로봇 수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교육복지 기부금을 전달하는 한편 참여 업체들과 함께 주변기기 제조,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역량을 적극 활용, 스마트로봇 활용 교육을 지원합니다.

T실버서비스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다

2013년 9월 SK텔레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스마트실버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실버 지원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유익한 보건복지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ICT를 통해 돕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실버 지원사업’의 첫 성과로 ‘T실버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8. Launcher

스마트폰 첫 화면에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성한 프로그램

T실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필수 보건 복지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제공하고, 전용 런처 8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실버서비스는 어르신의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용 편의성을 높여 모바일 이용환경을 강화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시각장애인 무료 음성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SK텔레콤이 2010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발·운영중인 서비스로, 도서·뉴스·잡지·생활 정보·재활 정보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무료 음성도서관 서비스입니다. 2013년 5월부터는 통신사와 관계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고객이면 누구나 T스토어·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SK텔레콤의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동행’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고객의 편익 향상과 ICT 나눔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성 도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SK텔레콤의 구성원들도 음성 도서를 녹음하는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행복동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시각장애인이 요금 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학습 등 콘텐츠를 추가로 확보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을 통해 ICT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스마트 아이코치’,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서비스인 ‘T청소년안심서비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서비스인 ‘학교폭력지킴이’ 등의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묶은 ‘청소년안심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피해 예방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지사각지대 없이 ICT를 통해 안심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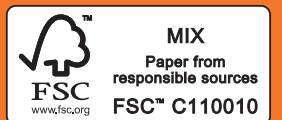
한 기업 한 기업의 바람에

한 산업 한 산업의 희망에

ICT라는 성장동력을 달아 우리 경제가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행복한 어우러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가면
더 행복합니다